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3년
2024년 5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294 호

불기 2568년 종령 봉축 범위

분별심 버리고 자비 실천해야



종령 지성 대종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상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나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 나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전쟁에 대한 책임은 불교의 인과법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

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온 삼독과 탐욕,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공업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가족과 골리아족의 로히니강 분쟁사건을 해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애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과 자리아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지성 대종사 제13대 종령 법좌에 오르다



제152회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13대 종령 지성 대종사의 추대 법좌가 지난 4월 16일 총지사에서 봉행됐다. 추대법좌에 앞서 종령 예하가 스승들의 외호로 서원당에 입장하는 가운데 동참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합창으로 예를 다하고 있다. 사진=현대불교 제공, 기사 2면

불기 2568년 통리원장 봉축사

대자대비심으로 평화의 등불 밝힙시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

5월의 햇살보다 찬란한 지혜와 대자대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에 편재충만하시어 따로 구할 바가 없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중생들에게는 2,600여 년 전 역사상 실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를 따르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먹구름으로 너무 많은 어린이들과 꽃다운 젊은이들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또한 충격과 비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황폐해진 곳곳마다 질병과 가난으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억압한다면 대비구세의 큰 서원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업중생으로 이들의 아

픔에 공감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대서원의 등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의 등불,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원력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과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불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정진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합니다.

중/조/법/어

불법은 체가되고 세간법은 그림자라. 마음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가 곧게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마음이 약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이다.

지면안내

- 2면 종령 추대법회 특집
- 5면 종단 봉축사
- 7면 부처님오신날 기획특집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불기 2568년

봉축범요식

날짜 | 총기 53년 5월15일 수요일 10시

장소 |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연등회

날짜 | 총기 53년 5월 11일(토)

- 서울 연등법회: 오후 4:30~6:00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 연등행렬: 오후 7:00 흥인지문~종로~조계사
- 부산 연등법회: 오후 6: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 연등행렬: 오후 7:30 부산시민공원 출발

“불법 준봉, 종조의 법통 승수로 종단 발전과 국가 진호에...”

종령 추대 법회 봉행, 4월 16일 총지사 500여 사부대중 환희심으로 합장례

불기 2568년 종령 취임 법어



불퇴전 각오로 창종 정신 계승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불민한 제가 총지종의 종령이라는 존엄한 자리에서 전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 대하여 실로 송구스러운 마음 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법계의 뜻이요, 종단의 부흥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도들의 염원을 감안할 때, 그 책임에 추호의 느슨함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지종의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고 모시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삼고, 소의경전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태장계와 금강계 모든 경계를 더해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여 1972년 12월 24일 정통밀교종단인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정 종조님께서는 스승과 교도들에게 창종의 서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에만 집착하기보다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우가는 대아적인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현세정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정진으로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을 새로 세우 가르침을 펼치는 정신이 널리 밖으로 빛나 세계만방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복덕의 공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중도 모두가 훌륭히 나설 것을 서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일체중생을 위하는 대승의 길을 걷는 것이 밀교행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수행과 세상 구제의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총지종을 세상에 펼칠 정신이 널리 열리어 원정 종조님의 창종 정신이 세상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현시대는 창종 당시와 교화 환경이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원정 종조님께에서도 시대에 따라 제생의세의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 방편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의 활성화에 두고 시의 적절한 교화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종단은 그동안 인재양성에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은 창종 53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부흥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도들의 염원에 부흥하기 위해 과거의 고루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계기로 저 또한 여러분 앞에 분골쇄신하여 종단의 발전과 이 땅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종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내 안녕을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제13대 종령 추대 법회에 참석한 스승들과 종령 예하가 기념촬영을 마쳤다.



법회에 앞서 동참 사부대중이 불퇴전에 합장례를 올리고 있다.



종령 예하가 통리원장 우인 정사로부터 법통을 전해 받고 있다.



종령 취임 선서 중인 지성 대종사



전국 신정회지회 각 지회장들이 교도들을 대표해 종령 예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법제자 지성은 종령에 취임에 즈음하여 불법을 준봉하고 종조의 법통을 승수하여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진호를 위하고 인류의 복지증진 및 일체 유행무형 중생의 해탈을 위하여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불퇴전에 맹세하나이다.” 지성 대종사는 종단 발전과 중생 해탈을 위한 길에 전력해 나갈 것을 본존과 범통 전에 선서했다. 이로써 지성 대종사는 제13대 종령의 법좌에 올랐다. 종단의 최고의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로 앞으로 6년 동안 종단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총기 53년 4월 16일 지성 대종사의 종령 추대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범일 정사 등 전국 스승과 기로스승을 비롯해 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내외빈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종령 예하의 추대를 축하했다.

이날 법회는 종령 예하의 선서에 앞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법통을 이운하여 불단에 봉안했다. 법통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친필 유훈이 담긴 종단의 전법과 사법의 상징이다. 이어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의 헌화와 훈장정공, 참회가와 오대서원가를 제창했다. 유가삼밀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불공을 올리고, ‘총지종 교세발전’과 ‘법통전승 원만’을 서원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넓고 깊은 해안력의 반야 지혜로써 종단의 종지종풍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시대변화에 동승한 교화방편을 널리 펼치시어 중생구제와 구국도생으로 대표종단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며 “종령 예하를 모시는 오늘, 종단과 불교 중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실천의 자리가 되길 서원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대사에 나선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는 “지성 대종사님께서

는 일찍이 종조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청정한 계율과 교상과 사상을 전수하여 우리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확립하는데 크게 일조 하셨습니다.”며, “종령 추대를 통해 총지종은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중생제도의 대서원을 실현하고, 중중무진 법계에 번뇌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며 사부대중의 마음을 담아 추대의 뜻을 전했다. 이에 종령 예하는 취임법어를 통해 “총지종은 창종 53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부흥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도들의 염원에 부흥하기 위해 과거의 고루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고 전제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일체중생을 위하는 대승의 길을 걷는 게 밀교행자의 길

이며, 자기 형편과 교화에만 집착하기보다, 종단 전체 이익을 위해 법을 세우가는 대아적인 위치에 서야 합니다.”고 설포했다. 전각종의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밀교의 흥망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의 안정,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외호하고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각종 재난을 진호해 인류세계가 더불어 함께하는데 있어 뒷받침이 되길 바랍니다.”며 축하와 총지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밖에도 전국 교도를 대표해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지회 박정희 지회장이 헌사를 올렸으며, 서울경인마니합창단과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의 연합 음성공양으로 법회는 환희심이 더욱더 넘쳐났다. 한편 추대법회가 끝나고 제102회 춘계 강공회가 다음날부터 19일까지 1박 2일 간 진행됐다.

박재원 기자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봉축 점등식 봉행

광화문 1,500여 명 운집...11일 서울 도심 대규모 연등 행렬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이 열렸다. 올해 봉축 대형 점등탑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선덕여왕에게 건의해 건립된 '황룡사 9층 목탑'을 한지로 그대로 형상화하였으며, 5월 15일까지 서울 도심을 환히 밝힐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응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봉축 점등탑을 시작으로 세종대왕상을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하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서원했다.

또 5월 11일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연등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연등행렬이, 12일 저녁 7시부터는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 개그맨 윤성호의 'DJ 뉴진 스님 EDM 난장' 등 행사가 열린다. **박재원 기자**

부산 정각사 봉축점등식

연등행렬, 11일 부산시민공원



부산 밀교의 성지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8일 자정일 11시 서원당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오늘의 정각사를 이끌었던 상수 보살님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불법승에 맞춰 점등의 버튼을 함께 누르며 부처님 오심을 함께 기뻐했다.(사진 위)

이에 앞서 부산경남교구는 교구장 법일 정사, 부산불교불연합감사 도우 정사(자석사 주교)를 비롯한 류길자 지회장, 만다라합창단 안미옥 단장과 단원 등 교도들은 4월 26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봉행된 불기 2568년 부산연등회 개막식에 참석해 범어사 7층 석탑등을 밝혔다. (사진 아래)

부산연등회는 5월 12일까지 17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전통문화 체험한마당이 열린다.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은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봉행된다.

신(神) 중심의 종교

지혜의 눈

깨달음은 본래진면목을 알아차리는 것 다름 인정하면 차별사라지고 평등실현

불국토(佛國土)는 부처가 사는 땅인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이루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깨닫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름이 사라지고 부처라는 '일미(一味)'로 똑같아진다는 것일까요?

불교는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 그 지점에 이르면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난 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본래 진면목(眞面目)임을 아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서열을 매기고 우열을 구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명의 길이이고 그 현재적 지점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체제가 자본주의로 그 안에는 인간도 상품으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차이를 통해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의지해서 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음으로 나는 의미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상대가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의 한 측면은 아닐까요.

조주세발(趙州洗鉢)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여쭙었다.

"저는 총림에 갓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 공양은 하였는가?"

"예 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우는 씻었는가?"

이에 그 승려는 깨닫는 것이 있었다.

평범한 일상 대화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순간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이 쌓여있어야 합니다. 때가 무르익어서 깨달음이 성취되었다고 해야합니다. 이 선문답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한가지는 평범한 일상속에 진리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은 현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실행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일상이 실행되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거기에는 우열이나 귀천없이 평등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선문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때 저의 과학의 내용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사이의 관계가 설정된다고 시간의 선후로 존재와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빅뱅이론의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존재로 분화되면서 동시에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존재와 관계는 선후가 아니라 동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연기(緣起)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저 선문답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속에서 진리가 담겨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읊조립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봉 축

부처님오신날

관성사

주교 | 우인

02-736-0950

밀인사

주교 | 덕광

02-762-1412

법천사

주교 | 화령

031-751-8685

벽룡사

주교 | 승원

02-889-0211

시범사

주교 | 혜광

032-522-7484

실지사

주교 | 서강

02-983-1492

지인사

주교 | 범우

032-528-2742

총지사

주교 | 록경

02-552-1080

서울경인교구 일동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보살행 실천하는 참 불자 되길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가르치신 대자유·대평등·대광명·대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3천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 가르침은 대자유·대평등·대광명의 길이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문에 들게 하는 진리입니다.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우리 다 함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의 등불을 밝힙시다.

나보다는 남을 이익되게 하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비와 희생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길 다 함께 발원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고, 성인 가운데 성인인신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서 천상·인간·아수라·지옥·아귀·축생의 6도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부처님

5월의 꽃향기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봄비나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속히 벗어나 지혜와 복덕을 구축하신 부처님의 거룩하신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등대이시고, 진리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거룩하신 석가세존 탄신일입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경정 정사

세상은 은혜의 터전입니다

계층마다 갈등을 어울려 화해하여 은혜가 넘실대는 웃음 꽃 피웁시다.

남 허물 바꾸려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 잘못 먼저 고치면 남이 따라오니 너 탓 내 자랑 서로 앞서 주장 말고 공사공사를 가려서 공도를 세워 가면 투쟁을 잠재우고 정의가 자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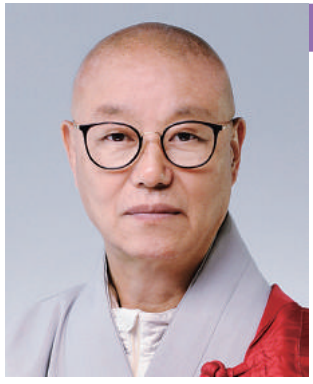
탐욕의 거친 말과 분노의 험한 소리 저마다 까닭으로 절절히 아우성쳐도 허공의 메아리로 소란만 드높아지니 진언眞言의 향음響音을 짙게 품고서 곳곳마다 해묵은 원한을 정화합니다.

강한 자의 유세도 약한 자의 낯두리도 인연의 그물 안의 부질없는 헛수고라 은혜의 큰 품으로 다 모여 열차 안고 주고받는 넓은 삶을 여실히 살려내어 오신 뜻 깊이 새겨 평화를 수놓읍시다.

오늘은 기쁜날 부처님이 오십니다. 부처님은 오고감이 항시 자재하여 시공에 걸림 없고 누구든 분별 앓고 정토세계 피서려고 그렇게 오십니다. 모두 함께 정성 다해 받들어 봅시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세상살이 어디나 안락의 처소이니 마음 맑은 사람은 이 어찌 깨치고 눈 밝은 선남선녀 그 도리 밝혀서 지금 이곳에 장엄국토 펼쳐갑시다.

소리는 공명하여 더욱 크게 울리고 자타의 상생相乘은 공력을 증폭하듯 귀천과 빈부가 다독여 상생相生하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부처님 지혜광명으로 행복 누리길

신 뜻을 가장 잘 받들고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고 돕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당한 채 기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전만능 앞에서, 기계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앞에서, 그리고 또 정보산업 앞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상가상으로 나라의 삶은 혼란에 흔들리고, 그에 따라 실업자들이 날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통 받는 대중을 포교하고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밝고 희망찬 연등불에 의지해 세상과 대중들이 오늘의 위기와 시련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연등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만 중생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환희로운 일들만 가득 일어나기를 두 손 합장 기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우리는 다 같이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시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평등성을 송두리째 상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제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



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도진 정사

지혜의 부처님 가르침 실천

리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지구촌공동체의 인연은 참으로 지중합니다. 그러나 나라 밖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하고 기후환경, 재난, 기아,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습니 다. 나라 안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비롯 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 문화적으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가르침을 부촉하셨습니 다. 이 가르침을 좇아 스스로를 성찰하면 서 법을 세우고 그 법에 의지해 정진합시 다. 자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참회를 합니다. 자성을 찾아 자기참회를 하면 이 웃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웃제도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하면서 우리들의 이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정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 서는 사바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이 땅 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 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 화를 찾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마음의 평화는 올곧은 신행으로 자기 를 확립하면서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당 당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 은 더불어 살려는 마음으로 나누는 실천 행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포교와 교화가 수행입니다. 용맹으로 정진하면 서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 리 전합시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 불성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 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지혜의 등불 밝혀 무명서 벗어나야

밝힐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리에 형형색색으로 걸린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곧 무명을 밝히는 것이니, 연등을 다는 것은 온 중생의 무지를 깨우치고 자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무명을 밝히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존재하다가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무상(無常)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니,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어질 인연 너머 새로운 인연이 자연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 인연들이 모여 새 인연을 짓게 되었습니다. 연등이 혼자 덩그러니 걸려있을

수 없듯이,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오신날, 무명을 밝히고 불성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爲尊).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무명(無明)을

봉축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주교 정인화 051-896-1578	단향사 주교 지홍 055-644-5375	덕화사 주교 법상인 051-332-8903	밀행사 주교 행원심 055-354-3387
법성사 주교 법선 051-468-7164	삼밀사 주교 묘홍 051-416-9835	성화사 주교 금강륜 051-254-5134	실보사 주교 서령 052-244-7760
일장사 주교 수행월 055-352-8132	자적사 주교 도우 051-752-1892	정각사 주교 법일 051-552-7901	화음사 주교 묘심해 055-755-4697
동해사 주교 법선 051-556-0281~2			

부산경남교구 일동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부처님 지혜 밝히고 연등권선 실천합시다

산야가 고운 빛으로 장엄되어 연화장세계를 이룬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만중생의 아버지로 오셨습니 다.

하늘의 밝은 태양이 항상 온 누리를 비추듯이 부처님께서도 복덕 지혜의 가피를 어느 누구 어느 곳 어느 때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배푸시건만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터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신의 가치보다 물질에 치중하여 나눔보다 지나친 소유를 위해 분쟁과 갈등으로 전쟁에 이르는 혼탁한 작금의 사태는 인류의 양악인 부처님이 가르침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우리 이전만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행복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법신불의 유정무정불법문 중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의 진리에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살펴봅시다.

불법! 법(法)자 뜻을 새기면 물이 가는 것.

첫째 물은 패인 곳은 채워주고 흐르지요. 중생들의 삶을 살펴보면 패인 곳을 권력과 명예 등을 이용하여 더 상채기를 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처님의 무주상보시(布施)정신을 발휘하여 채워주며 더불어 살아감이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둘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질서정연하게 윤희 흐르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 어디서건 질서가 문란하기 그지없습

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단체 등 어느 곳에서라도 지계(持戒)의 힘으로 질서를 지킨다면 평화롭고 따뜻한 삶이 되겠지요.

세 번째 물은 막힌 곳에서는 여지없이 둘러갑니다. 중생들의 현실 모습은 막혀있다면 맞받아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만약 잔뜩 화나서 선후본말이 전도되어 있을 시라도 인욕(忍辱)의 힘으로 조금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서로가 부처님 모습이 되겠지요.

넷째 물은 앞만 보고 그야말로 정진합니다. 중생들은 목표설정 해놓고도 나의 자로 재고 나의 저울로 달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정진은 고사하고 원망, 비난을 일삼곤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번뇌 망상이 시험하며 흔들려도 용맹 정진(精進)한다면 반드시 소원성취하실 겁니다.

이렇듯 부처님 나무시기 전에도 이후에도 물의 성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언제까지라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상이 살아있는 경전이듯 흐르는 물처럼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실천으로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우리 불자들이 만들어 봅시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봉축하는 형식에 만족하지 말고 각자 마음의 부처님을 찾아 지극정성으로 맞이하여 공경합시다. 모든 불자들이 자성불을 찾아 서로를 경애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청정한 불국토가 이뤄지겠지요. 부처님의 자비지혜의 등불이 온 누리를 밝힘은 물론 불자로서 연등권선의 의무를 실천하여 진실한 불자로 거듭납시다.

오늘 2천만 불자들이 밝힌 자비지혜의 무진등불의 인연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의 행복한 삶이 영원하기를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동체대비로 사회문제 치유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립, 국가 간의 분쟁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이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 줍니다. 사람과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의 부조화와 대립은 더욱 큰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과 대립이 빚어낸 결과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을 널리 펼쳐 나가 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므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통 없는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 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사감원장·부산경남 교구장 법일 정사

양심이 '마음의 평화'요 '행복한 세상'이다

성현의 양심의 소리다. 이 양심이 없을 때 망심(妄心)이 자유를 얻어 모든 죄과(罪過)를 범하게 되고, 이 양심이 자유로울 때 망심은 제어되어 인간은 향상되고 행복하여 진다." 라고 법설하셨습니다. 인간 양심이 바로 경륜론입니다. 양심이 올바를 때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인류의 평화뿐만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자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맘에 드는 나'입니다. 결국 나에 대한 자존감과 자

부심,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현재 내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잘 가꾸어가는 것이 양심을 올바르게 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내 맘에 드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자리이타의 등불 밝힙시다

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불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밝히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같이 절대 평등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열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어떠한 사상과 제도, 권력에 의해 구속되거나 억압받아서 안 됩

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날은 생명해탈의 날이요, 인간존엄의 대선언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되시고,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봉 축

부처님오신날

만 보 사

주 교 | 유가해

042-255-7919

법 황 사

주 교 | 인선

062-676-0744

중 원 사

주 교 | 정정심

043-833-0399

혜 정 사

주 교 | 진일심

043-256-3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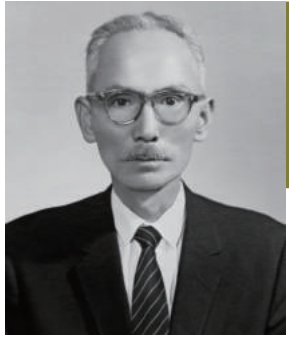
흥 국 사

주 교 | 인선

063-224-4358

충청전라교구 일동

“수행하는 이는 재앙을 스승으로 삼는 법이니”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1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1970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불교종단대표컨퍼런스에 한일불교전선협회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대종사 자격으로 대회 부단장으로 참여하며, 밀교 종단의 위상을 높였다.

세상에 순응하는 자는 진실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돌아가는 일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밀교 행자이며 관세음보살의 뜻으로 일체를 구하겠다는 원을 세운 이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 앞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성사는 준제관음법을 펼치면서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의 오해와 장애를 알고 있었다. 허나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세상을 무명으로 이끈다면 그 또한 밀교행자의 길이어니와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대성사는 1971년 이의 시행을 진각종 원의회와 종의회에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의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승직자와 교도들이 공감했지만 당장 준제관음법의 취지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당 대종사 재제 시 시행했던 수행법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대두되면서 종단은 흔들렸다.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으며, 새로움을 내세워 옛 자취를 지우려 한다는 주장과 곡해가 빚발쳤다. 오해의 뿌리에는 대성사가 회당 대종사의 흔적을 지우고 종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이 있었다. 회당 대종사의 권속을 중심으로 일부 스승

들의 항의가 닦졌다. 소위 준제파동이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분종의 조짐마저 보였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원정 대성사는 20여 년간 회당 대종사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온 종단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다. 분열을 원치 않았던 대성사는 1971년 12월 총인 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회당 대종사의 영전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대성사를 따르던 이들의 동요와 분란을 막기 위해 아예 종적을 감추고 집거에 들어갔다.

대성사의 대처는 오직 묵연(默然). 어떤 경우에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심중을 지킬 뿐이었다. 그 과정을 많은 이들이 보았고 여러 스승이 목격했다. 후일 대성사를 따라 나선 이들은 이때 묵빈대처(默賓對處)하는 모습에서 진실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대항하지 않고 오직 불경을 연구하고 밀교행자로서 진언과 수행에만 몰입했다.

바른 밀교수행법을 정립하여 진각종을 정통 밀교종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던 대성사의 뜻은 무산되었다. 정법 밀교에 대한 무지와 종단을 혼란에 빠트릴지 모른다는 오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생을 걸고 실천했던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옴나니반메흠으로 불철주야 기도해 생사가 위태로웠던 아들을 구했고, 범신 부처님의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가지력(加持力)을 생생하게 확인한 대성사는 진언연송의 가피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체득하고, 수많은 밀교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나갔다.

잊혀졌던 비밀의궤법과 다라니의 밀교수행법을 이대로 묻어야 하는가? 정통 밀교종단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은 정녕 헛된 열망인가? 대성사는 곧 100일 불공에 들어갔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믿음을 법계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거소에 은거하며 심중의 응답을 기다렸다. 기도와 수행이 깊어졌다. 주변이 고요해졌고 시비는 사그라들었

다. 오직 정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범신 부처님을 마음 안에 온전히 담기 위해 염송했다. 민생고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참된 밀교수행법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해탈을 얻는 진리의 방편을 체득하고자 온몸을 던졌다.

정진이 이어졌다. 두 손으로 맺은 결인은 우주 법계의 범신 부처님과 자비의 화현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간절한 진언행자를 하나로 이어주었다. 지극한 진언연송이 거듭되었다. 우주의 소리와 고통 받는 중생들의 소망이 소용돌이쳤다. 진언연송의 뜨거운 열원과 정통-정법의 밀교종단 창종을 위한 서원이 대성사의 몸과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백 일째 되는 4월 7일 밤, 원정 대성사는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금관을 전해 받고, 다음날 밤 다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한 줄기 서광과 함께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한 점 티 없이 바르고 깨끗하고 완전무결한 밀교법으로 중생을 고난에서 구하라는 불보살님의 부촉이었다. 대성사는 이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심지를 세웠다. 밀교의 법은 몽수 전법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다.

1972년 6월 28일 대성사는 마지막 남은 명예직인 기로원장 직을 내려놓고 물러섰다. 신심 있는 이는 오직 사필귀정과 파사현정을 믿을 뿐 세상의 오해와 시비에 휩쓸리지 않아 용기 있게 자기 길을 걷는다. 대성사는 그렇게 자기 삶의 중요한 시간을 보낸 진각종에서 물러서 더 큰 빛의 길로 향하였다.

당장 진각종에서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대성사로서는 갈 곳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인척의 집에 임시 거처를 구하였다. 당시 형수와 가족들이 정문에서 목욕탕을 하였는데, 1층은 목욕탕이고 3층에 그 가족들이



1970_원정대성사_세계불교종단대표컨퍼런스 (10.10-15)

살고 있었다. 비어 있던 2층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였다. 대략 3개월 정도를 정릉 형수의 집에 의탁해 있었다. 그야말로 평생 사사로이 가지고 쌓아둔 것이 없는 구도자의 삶이었다.

그 후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앞 서울선교부 응신서원당(應身誓願堂), 지금의 정심사에서 대성사는 수행을 하며 집거하게 된다. 이곳에 머물면서 법계의 변화를 살폈다. 1972년 8월 27일부터 이곳에 머물며 밀교의 후일을 기약하였으니 정심사는 총지종의 요람이 된 곳이다.

대성사는 세상과 절연한 채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는데, 상봉동에 머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스승과 교도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이때 대성사를 찾아온 이들이 록

정, 환당, 청암, 현수, 불멸심, 법장화, 대자행, 복지화 등 진각종의 스승과 교도이다. 오래도록 대성사를 보아온 이들은 한눈에 밀교의 비법을 성취한 거룩하고 고요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성사의 편을 들기도 하고 종단의 처사를 원망하기도 하였으나 대성사는 고요히 웃을 뿐 일체 원한을 삼지 말라고 가르쳤다.

“세상일은 무상하니 생한 것은 멀하고, 나타난 것은 변하는 법이다. 인연이 다하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전법은 멀하고 후법은 생기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다.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미움을 담지도 말라. 법계는 어려움으로 복을 주고, 수행하는 이는 재앙을 스승으로 삼는 법이니 이 일 이후에 크게 좋은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야 한다.”

봉 축

부처님오신날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개천사</p> <p>주교 인덕심</p> <p>053-425-7910</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건화사</p> <p>주교 도관</p> <p>054-761-2466</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국광사</p> <p>주교 혜안정</p> <p>054-772-8776</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단음사</p> <p>주교 일진</p> <p>054-333-0526</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선림사</p> <p>주교 수현</p> <p>054-261-0310</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수계사</p> <p>주교 자심관</p> <p>054-745-5207</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수인사</p> <p>주교 법상</p> <p>054-247-7613</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승천사</p> <p>주교 지선행</p> <p>054-764-7434</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제석사</p> <p>주교 원만원</p> <p>053-743-9812</p>			

대구경북교구 일동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가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 만나는 부처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선택받은 존재처럼,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도 되는 듯, 초인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처라는 이 단어는 붓다(Buddha)에서 유래하였는데,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우리 식의 발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 붓다, 즉 부처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다음의 45년간이 부처로서 활동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45년간 쉬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데 애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라는 것도 형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천민부터 고위직 대신과 왕족에 이르기까지 출신계급의 폭이 넓고 다양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신분의 제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신분이나 직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등 없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우바리'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뛰어난 10명을 꼽아 10대 제자라고 일컬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이 '우바리'였습니다. '우바리'의 직업은 이발사였는데, 그때의 이발사는 천한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

다. '우바리'보다 더 늦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난 일곱명의 출신 계급은 왕자였는데, 언제나 '우바리'가 일곱왕자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먼저 받은 이가 '우바리'였던 까닭입니다. 이는, 신분에 따라 행위가 달라지는 것

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통으로 인해 무언가가 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분으로 인한 벽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인도 모습은 어떤가요? 부처님의 바람대로 되었나요? 여전히 엄격한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그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인도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도 헌법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실제의 사회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의 귀천도 엄연히 존재하고 출신 환경에 따라 균등한 기회 분배에도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도달 가능한 도착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좌절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재가 불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출가하지 않았다면, 세속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결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해서 살지 않았습니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처님 자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여력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는 위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하고, 일생을 교화에 전념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80세에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드셨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통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열반과 죽음에는 그다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많은 번뇌를 가지고 있고, 이 번뇌들은 제각각 저마다의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리석음의 작용, 욕망의 작용, 분노의 작용, 질투의 작용 등입니다.

번뇌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불교인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상향은 바로 '번뇌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종교인이라고 한들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의미 안으로 활동을 즐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늘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 의식주(衣食住)는 번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한들, 깨달은 마음만 남아있다고 한들 번뇌까지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어진다는 것은,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기 전에는 욕망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죽음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불교의 최종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해탈'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광범위한 지식보다는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르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선계, 비뚤고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악계라고 하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육체는 선계가 쌓여서 만들어 집니다. 정신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행동을 바르게 해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마음을 통일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전념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바야흐로 지혜는 깨달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봉 축

부처님오신날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박정희
총 무 | 김옥인, 백귀임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윤복자
총 무 | 김옥희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 민순분
총 무 | 배정임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 회 장 | 류길자
부지회장 | 허태연 이지은
총 무 | 조향선 신혜영

마니 합창단

단 장 | 최 해 선

만다라 합창단

단 장 | 안 미 옥

부림 합창단

단 장 | 조 정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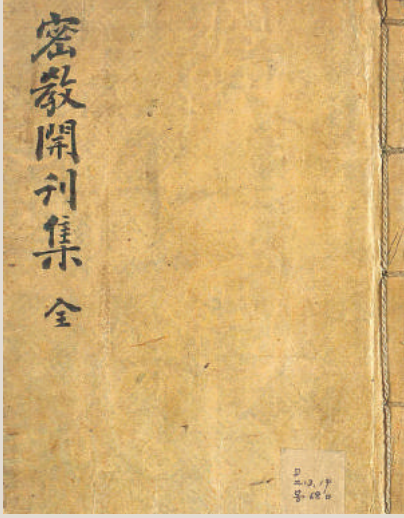
선밀쌍수 『밀교집』(3)

불교를 공부할 때 중국의 화엄과 천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다. 우리말과 다른 언어와 중국 특유의 문학적성은 필자같은 둔재에게 갈 길이 멀게 만들었다. 학문은 문자와 개념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유의 뭇을 깔아 놓는다. 학문을 생업으로 삼게 되면 논문에 권위 있는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제2, 제3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최근 논문들은 갈수록 어렵고 장벽이 높아진다. 많은 학술지가 있지만 여전히 논문투고는 어렵다. 무명의 심자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논문투고의 탈락률은 높아진다. 이런 학계의 상황은 밀교학도 비껴갈 수 없다.

원정대성사의 법문을 모은 『종조설법집』을 볼 때마다 밀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대성사의 가르침은 진언행자의 수행을 이끌고 세간법문은 불자의 삶을 제시한다.

『종조설법집』 가운데 대성사는, “이 감각을 마음에 머물게 한 것이 자성만다라다. 자성이라 함은 마음속에 비장(秘藏)한 인간의 무한 에너지이며 깨달음이란 이렇게 가장 순화된 에너지가 완전 연소될 때 일어나는 일찰나이며 하나의 정적이다”(『종조설법집』, p.33)라고 하였다. 대성사는 당신의 오도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찰나의 정적’이란 말은 필자로 하여금 모골을 송연하게 만든다. ‘감각을 마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말은 감각을 자성만다라로 관조하는 진언문의 수행이다.

대성사의 법문은 보다 더 쉬운 살아있는 길을 제시한다. 감각은 생명과 삶을 이끌며 인간에게 있어 호흡이자 육신을 지탱하는 삶이다.



쌍계사수도암_개간집

대성사의 법문에서 개인적으로 순간 학자의 치장을 벗어던지고 만다라의 마당에 노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느꼈다. 화엄과 천태의 담장을 허물고, 선사들이 남긴 말에 또 다른 상상력을 동원하는 고민을 털게 되었다. 어설피지만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시시콜콜한 일상의 삶이 잘나 환희로 바뀌고 약간 견터널 용기를 얻는다.

『밀교집』에는 준제진언이 나온다. 최초 준제진언의 출처는 지바가라가 685년에 번역한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이다. 이 역본은 금강지역과 불공역의 것이었다. 선무와삼장은 준제법만 따로 구성한 준제법을 역출했는데 이것은 인도원전에 보다 가까운 역본이다. 『밀교집』에는 준제주의 결인법과 포자법을 경전인용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경전인용은, “만약 지혜를 구하면 큰 지혜를 얻는다”라 하였고 대륜일자주(大輪一字呪)인 ‘부림’에 대해서는 문수보살의 심진언으로 『밀교집』의 별기에는 이 주만을 별도로 외워도 속히 성취한다 하여 많은 선가의 남자들이 즐겨 암송했다.

『밀교집』은 많은 진언들로 이

루어져 있다. 출세간 진언들은 오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세간실지를 위한 진언들은 불보살의 위신력과 구호력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 진언은 밀교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선사들은 진언을 공부하고 밀교를 공부했다. 4세기 미륵은 『유가사지론』에서 대승의 보살은 다라니에 능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경허선사는 항마진언과 준제진언을 가르쳤다. 경봉선사도 필사본 『밀교집』을 남겼는데 책명은 같지만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42수 진언을 모은 것이다. 불보살의 위신력을 모르면 대승의 근기가 아니다. 법신·보신·화신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선사는 구두선(口頭禪)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선의 경계가 높을수록 불보살에 신세 지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고 감사하는지 모를 일이다.

달마대사는 중국에 건너와서 언어의 유희와 치장을 좋아하는 중국의 풍토를 경험했다. 달마대사는 말을 더하지 않고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강력한 처방전을 써주었다. 한국과 동아시아 다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선어록』에는 거친 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른 똥막대기’,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 ‘어금니에 이빨이 난다’ 등 이 거친 말들은 일상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밀교경전 가운데 감각의 세세까지 진리로 직관하는 고도의 의례는 ‘이취경’과 경전의 만다라에 나온다. 거친 말을 구사했던 선사의 오도와 밀교의 의례의 정신이 교감하는 경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우리도 부처님처럼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훑어보다 장 피에르 카르티에와 라셀 카르티에 부부가 쓴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혼자 불공을 하거나 수행을 하기 전 잠시동안 관법을 할때 어떻게 관법을 해야 하는지 내게 영감을 준 책이다.

책의 내용 중 “숨을 쉴 때마다 매번 당신은 수십억 개의 원소를 들이마신다. 그중 몇백만 개의 원소들은 수명이 아주 긴 아르곤 가스 원소들로 몇 초 뒤에는 당신이 내쉬는 숨과 함께 밖으로 나와 대기 중에 흩어진다. 그것들은 아주 오랜 세월 그런 식으로 인간의 몸을 드나들었다.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어떤 원소들은 부처나 예수의 코 속으로 들어갔던 것도 있고 한때 동굴에 사는 원시인의 폐 속을 방문했던 것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읽다 부처님과 내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었다. 그 후로 혼자 수행을 하기 전, 눈을 감고 내 앞에 부처님이 앉아 있고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함께 숨을 내뿜다고 관하며 삼밀관행 수행을 시작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4단어로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출가 후 6년 동안의 고행을 거쳐 보리수 밑에서 선정수행으로 깨달으신 내용은 ‘연기(緣起)’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순간을 『자설경(自說經, Udāna)』에서는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 날, 그의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연기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존재 원리로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며 일정한 조건에 의해 변화해 가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라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연기의 이러한 어려움을 부처님께서

는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 Saṃyutta Nikāya)』에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그것. 심심 미묘하니 어찌 알리오, 걱정에 메이고 무명에 덮인 사람은 이 법을 깨닫기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를 설하는 것을 주저하셨다. 이에 법천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세존이시여, 원컨대 법을 설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눈이 티끌로 가려짐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법을 듣지 못한다면 망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은 법을 듣는다면 필시 깨달음에 이르리다.”며 부처님께 설법을 권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못 속에는 온갖 빛깔의 연꽃이 핀다. 아직 흙탕물 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면 위에 고개를 들고 아름답게 피어 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것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채 아주 맑은 꽃을 피운다. 그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각색임을 관찰하신 부처님께서서는 마침내 설법을 결심하시게 되셨다.

그리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연기의 이치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연기의 이론을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내셨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37도도품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서는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 팔정도로 초전법륜을 굴리셨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부	처	님	오	신	날	참	교	육
창			매		씨	깨		합
부		염	불			비		상
수	심		망	연	자	실	제	
	신			애		비	주	
조	미	료				실	미	도
	약		어		용	식		
미		역	린		두	가	시	리
디			이	판	사	판		허
어	버	이	날		미	풍	수	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이사장 : 우인정사
교장 : 송인근
교감 : 김진화
행정실장 : 법선정사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사회복지 활성화가 곧 포교 활성화”

이사장 우인 정사, 재단 산하 기관 방문



이사장 우인 정사가 벗고을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어린이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우인 정사가 지난 4월 23~24일 재단 산하기관들을 일제히 돌아보고 기관장과 종사자들을 만나 운영 현황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인 정사는 “앞으로 종단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이웃과 지역을 위해 상호 역할을 다해 나가자.”

고 제안하며, “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곧 포교의 활성화임을 함께 인식하고, 재단은 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각 기관의 시설을 돌아 보며 보육 중인 아동들과 시설 참여 어르신들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현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은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 초록어린이집(원장:

유지영), 힐스어린이집(원장: 광방은), 다함께세곡키움센터(센터장: 김경희)의 관내 어린이집 3곳, 키움센터 1곳과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원장: 김선희),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원장: 진금선), 강서구 벗고을어린이집(원장: 이민선), 성남시 양지어린이집(원장: 정동숙), 양지동제1복지관(관장: 서영주),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 등 10개의 산하 기관을 두고 있다.



군장병 봉축 위문품 전달 제6사단 호국 청운사 방문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은 군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군포교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월 26일 범수연 전수, 보명심 전수, 해광 정사, 남해 정사는 서울경인신정회지회 박정희 지회장을 위시한 서울경인교구 교도들과 함께 육군 제6사단 호국 청운사(향담 법사)와 사단 예하 여단인 호국 육철사(총립 법사)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군장병 30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종단 간행물 위드드라마를 포함해 마스크팩, 바디로션, 과자 등으로 구성됐다. 향담 법사는 “불교총지종에서 해마다 늘 잊지 않고 최전방 부대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보내주신 마음은 군장병들의 병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눔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하고 불편하지만 참고 서로 배려하며 사는 화해의 정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삶이 그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돈까나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우쭐대며 사는 것은 졸부(狝富)의 작태이다. 나 혼자서 넉넉하게 살아갈 돈을 몽텅이로 벌어들여 보듬고 으스대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누리도록 해 준 이 세상에 대한 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말로 귀족의 역사가 긴 오늘날까지 유럽 사회를 지탱하여 온 정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귀족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기본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국가발전의 목표임을 어려서부터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도리이다. 왜냐 하면, 나눔이 주는 기쁨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사랑과 나눔은 각박(刻薄)한 우리 사회에 생명력을 만들어 주는 혈관과도 같으며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나와 내 이웃에 대한 조화로운 절정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기가 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뜻있는 한 교장 선생님은 졸업식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사회인이 되면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회단체에 꼭 가입하라.”고 권했다고 했다. 왜냐 하면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자

기 책무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인간적 성장의 첫 단계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말은 지식이든 물질이든 혹은 마음이든 서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두 배 더 행복해진다는 삶의 법칙을 가르치는 말이다.

평소 부(富)를 과시하던 졸부(狝富)에게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눔의 정신은 인간 생활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있게 하지만 실제로 몸소 행동을 실천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성철 스님도 평생을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얻은 깨달음의 진리가 ‘자신을 바로 보고 남을 위해 기도 하라’는 단 두 마디였다고 한다.

배움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내야 하고, 돈도 결국은 자신의 성실을 담보로 해야 모을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배움도, 부(富)도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본래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수록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가정교육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 사회에 시사(示唆)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병폐에 신음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부모들의 희생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걸 수 없게 되었다. 배우고 가진 자의 생활이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과 나누는 삶이 인간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자급의 상황이 아닐까 한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광방은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불교총지종 부처님오신날 축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강서구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 <p>강남구 다함께세곡키움센터 김경희 센터장</p> </div>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 <21>

나를 일깨우는 하루 5분 기도 명상

부처님이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중도연기법은 위대한 지혜이다. 21세기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관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불교는 과학이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부처님이 깨친 우주 만물의 진리는 공부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감탄스럽다.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라 할지라도 불교는 사유 분별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과 달리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기에 더 궁극적이고 인류와 우주 만물에 이로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감소하고 허망한 미신과 점술은 성행하는가?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이해와 믿음이 부족한 것과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정견(正見)과 신행(信行)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돌아보면 부처님이 깨치고 그 가르침이 실현되지 너무나 오래 되었고, 한국불교도 17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었다. 특히 조선조 500년의 억불정책은 불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난한 법난의 역사였다.

그러나, 참으로 경이롭게도 1945년 광복 후 위대한 선각자들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와 승단 정화운동의 성취로 한국 불교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특히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 성철스님의 '백일법문(百日法門)'은 2600년 불교사상사에서 획기적인 계기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선어록 등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한 문자로 결집되어 있어 불교의 근본

“ 매일 5분씩 명상하면 언젠가 공부 도약돼 부처님 지혜·믿음이 확고한 자신을 발견 ”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성철스님은 팔만대장경의 근본이 중도(中道)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회통해 놓았다.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성철스님의 회통적인 견해는 현대 세계불교 역사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사상으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인 양극화와 지구 기후 위기에 대안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21세기 한국불교는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의 자기 정체성 정립이다. 불교가 무엇이며, 한국불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국불자들이 스스로 답이 나와야 한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고 중도의 삶을 살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혼란이 있었으나 너무나 다양한 경전과 사상으로

로 불교 공부에 어려움이 많다. 이제 한국불교의 각 종단은 이를 정비하고 모든 불교 사상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다시 살피고 중도정견을 세우고 실천하는 교육과 실행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자들의 불교 공부를 돕고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자기 삶의 고통에서 지혜를 밝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려는 한국 불자라면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상권 근본불교사상편을 반복해서 정독하여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연기법을 확실히 이해하시길 권한다.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 중도연기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이해되고 믿음이 갈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가치를 알게 되고 믿음이 나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정견을 세우고 바른 깨달음 공부로 나아가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에 한 가지 간단하고도 중요한 묘책이 있는데, 필자가 직접 체험한 것이니 자신 있게 권한다. 바로 하루 5분 기도 명상하는 법이다. 매일 정해 놓은 시간에 5분씩 규칙적으로 명상을 해나가시라.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5분 명상을 하는 것이다. 매일 매일 5분씩 기도 명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5분 명상을 하다 보면 언젠가 공부가 도약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지혜와 믿음이 확고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초기불교 전통에서 서구의 모더니즘 불교까지

불교 윤리 1,2 도서출판 운주사 원제: THE OXFORD HANDBOOK OF BUDDHIST ETHICS 다니엘 코조트 & 제임스 마크 쉘즈 편집 | 이동수 옮김 152*224(신국판) | 출간일 2024년 3월 12일 1권 640쪽/ 값 38,000원 2권 736쪽/ 값 43,000원

이 책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9명의 학자가 불교 윤리의 전통적, 현대적 주제에 대해 균형 있고 비판적으로 성찰한 31편의 글을 모아 엮었다. 시대, 민족, 지역, 종파 등을 포괄하는 방대하고 정직한 저서로, 불교 윤리뿐만 아니라 서양 윤리와의 비교, 나아가 심리학적 영감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교 윤리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학파나 종파(중관파, 정토종, 선불교, 탄트라 등), 지역 불교(남아시아, 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티베트 등의 지역 불교)들의 전통적인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제기 되는 다양한 문제, 즉 환경, 인권, 여성의 권리, 성, 생의학, 안락사, 낙태, 자살, 동물의 권리 등의 문제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나아가 불교 윤리와 서구 윤리의 비교 및 아시아와 서구의 참여 불교에까지 관심이 닿아 있다.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각각의 글들은 독자적인 주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들을 택해서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교총지종 봉축 광고 편성 안내

방송편성안내 불교총지종 봉축광고 2024년 04월 26일~05월15일 05:25 / 11:25 BBS 불교방송

BTN 불교TV 불기 2568년 봉축 축하광고 방송시간 안내 2024년 04월 17일~05월18일 12:58 (15분~10분 오차발생)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3월 21일 ~ 4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 7668610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후원사, 후원금, 후원일, 후원금. Includes rows for 관성사, 국광사, 기로스승, 단음사, 동해사, 만보사.

Table with 4 columns: 후원사, 후원금, 후원일, 후원금. Includes rows for 만보사, 밀인사, 밀행사, 법천사, 법황사, 벽룡사, 벗고을어린이집, 사원명무기명, 삼일사, 석관실버복지센터, 수인사, 시법사.

Table with 4 columns: 후원사, 후원금, 후원일, 후원금. Includes rows for 실지사, 아동회관어린이집, 양지어린이집, 양지제1복지관, 일원어린이집, 자석사, 정각사, 제석사, 지인사.

Table with 4 columns: 후원사, 후원금, 후원일, 후원금. Includes rows for 지인사, 초록어린이집, 총지사, 통리원, 회음사, 힐스어린이집, 관성사.

*포항 대련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3/25 100,000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향사 주교 인선
교정부장 보현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종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일진	혜정사 주교 진일심
중앙총의회	시법사 주교 혜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수현	흥국사 주교 인선
사감원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원의원	지인사 주교 범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법장원		자석사 주교 도우		
중앙교육원		정각사 주교 법일		
밀교연구소		화음사 주교 묘심해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동해사 주교 법선		